

#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에 관한 比較考察

李在媛\* · 宋一炳\*

## A Comparative Study on the View of Lee Je-ma's Constitutional Medicine expressed Sasang ChobonGuen and Dongyi Suse Bowon

*Lee Jae-won, Song Il-byung*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1. Purpose:

This studied by the comparative method the view of Lee Je-ma's Constitutional Medicine expressed Sasang ChobonGuen and Dongyi Suse Bowon.

### 2. Method:

I studied the view of Lee Je-ma's Constitutional Medicine classified broadly 'General view of life' and 'Constitutional view of life expressed SangChonbonGuen and Dongyi Suse Bowon.

### 3. Results & Conclusion:

Sasang ChobonGuen gathered 'Seongmoung-Ron', 'Sadan-Ron', 'Hwakchoong-Ron', 'Byeonjeong-Ron' and a part of 'Jangbu-Ron' of Dongyi Suse Bowon. It is insufficient the explanation of 'CheonGi', but the fundamental spirit is same. The study of Soyangin is done earlier, the studies of Soeumin, Taeumin, Taeyangin is done later.

---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體質科

## I. 緒 論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의학이다. 〈東醫壽世保元〉은 1894년에 처음 저술된 이후 임상경험을 축적하여 1900년까지 性命論부터 太陰人論까지 改草하였다. 그 외에 李濟馬가 남긴 著書로는 〈濟衆新編〉 〈廣濟設〉 〈格致藥〉 〈東武遺稿〉 등이 있다.<sup>1)</sup>

〈東武遺稿〉는 최근 발견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所藏本으로 여기에는 이미 〈格致藥〉 부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濟衆新編〉과 〈遺藥抄〉 이외의 遺稿와 東武의 詩, 上疏文, 편지글, 遊覽을 통한 各道の 風俗이나 여행기록, 閩幽草, 教子平生箴, 八卦箴總論, 知風兆 및 後人이 기록한 李濟馬에 대한 追錄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연기미상의 필사본으로 著者が 明記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 東武의 著書임이 분명하다.<sup>2)</sup>

또한 1936년 魯山 金九翊은 제자였던 林鳳宇와 함께 李濟馬의 최후의 제자였던 崔鏡용을 찾아가 〈四象醫學 草本卷〉을 필사했고, 1951년 〈四象醫學 草本卷〉을 펴냈는데,<sup>3)</sup> 이 책에는 李濟馬가 後에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하기 전의 初期에 생각했던 理論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책의 내용과 東醫壽世保元을 비교하면 李濟馬가 어떠한 생각의 변화로 四象理論을 완성시켜갔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著者は 四象醫學 草本卷 및 東武遺稿의 一部內容, 東醫壽世保元의 內容을 살펴 李濟馬가 四象醫學의 理論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생각했던 思考의 변화를 살펴보아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 및 考察

이제마의 사상철학은 모든 우주만물의 구성과 생성변화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네 가지로 설정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宇宙現象, 社會現象, 人體現象 등에서 관찰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sup>4)</sup>

이제마는 人間과 宇宙自然現象과의 관계를 相互影響을 끼치는 관계로 인식하였고, 우주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크게 4가지로 설정하였다 (1.1, 1.2). 그 첫째는 '天機'이고, 둘째는 '人事'이며, 셋째는 '知' 혹은 '性'이라 하였고, 넷째는 '行' 혹은 '命'이라고 하였는데, 우주자연현상 중 인간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人事라고 하였고, 개인의 의지와 관련없이 존재하는 부분을 天機라고 설정하였다.<sup>5)</sup>

이러한 天機와 人事는 인간과 상호영향을 주고받게 되는데 天機와 人事라고 하는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知와 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知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고, 이것은 결국 이제마가 모든 우주자연현상을 인간중심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인간의 내부

1)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2)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3) 李濟馬原著, 金達來編譯, 도서출판 정담, 1999, p.1

4)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66~76, pp.119~133

5)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66~76, pp.119~133

에서 일어나는 知와 여기서 기초한 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天機와 人事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통로는 耳目口鼻이며 이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과정은 知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외부로 표출하는 行의 과정을 거쳐 肺鼻肝腎에 의해 생활을 유지해 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知는 心과 관계를 맺게 되며 行은 身과 관계를 형성케 되는데, 形而上學의인 표현인 知는 頤臆臍腹에서 이루어지고 形而下學의인 표현인 行은 頭肩腰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그는 인간의 외부에서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미치는 耳目口鼻와 肺鼻肝腎은 好善하고 惡惡하므로 堯舜과 같다고 하였고 아울러 堯舜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은 頤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髀의 怠行으로 기인한다고 하였다.

결국 인간이 올바르게 知와 行을 하기 위해서는 邪心과 怠行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러한 邪心과 怠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存其心 養其性하고 修其身 立其命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知行의 등급에 따라 知人, 愚人, 賢人, 不肖人으로 나누었는데, 따라서 李濟馬의 知行論은 인간이 우주만물의 이치를 잘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여야 聖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결국 우주만물을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변화하는 주체는 우주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 및 자신의 資心資氣하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 聖인이 되는 근본적인 요건이 모두 知行으로 귀

일된다고 보았다.<sup>8)</sup>

따라서 李濟馬의 사고는 衆人도 노력하여 邪慾을 제거하고 인간의 본성을 찾으면 누구나 聖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며, 頤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髀의 怠行을 存心養性하고 修身立命하는 자율적인 극기의 노력을 통하여 知行이 쌓이면 그것이 道德이고, 도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仁聖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道德이 바로 知行이며 性命 또한 知行이라고 하는 李濟馬의 철학이 단순한 思惟와 觀念의 哲學이 아니라 實踐의 道, 知行의 哲學임을 알 수가 있다.<sup>9)</sup> 〈四象草本卷〉 및 〈東醫壽世保元〉을 비롯한 李濟馬의 모든 著作에 바로 이 知行의 道를 論하고 있는데, 이러한 知行哲學이 四象草本卷에서는 일부 나오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 나온다고 볼 수 있다.

李濟馬의 人間觀은 크게 일반론적인 인간관과 체질론적인 인간관의 두가지로 대별될 수가 있는데,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일반론적인 인간관을 담고있는 四象草本卷의 原人編은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의 내용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의 나머지 부분 및 四象草本卷의 病變編은 체질론적인 인간관을 담고있다고 보겠다.

이에 李濟馬의 四象醫學觀을 크게 일반론적인 인간관과 체질론적인 인간관의 두가지로 大別하여 〈四象草本卷〉 및 〈東醫壽世保元〉에 나온 그의 思想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6)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75

7)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75

8)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p.66~76

9)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p.66~76

### 1. 一般論의인 人間觀

1.1 天生萬民 性以知行 萬民之生也 有知行則生 無知行則死 知行者德之所有生也  
 天生萬民 命以衣食 萬民之生也 有衣食則生 無衣食則死 衣食者道之所有生也

1.2 太陽之知 知而過也 象人之過於知者易爲詐也  
 少陰之知 愚而不及也 象人之愚而不及者易爲嗇也  
 太陰之行 賢而過也 象人之賢而過者易爲放也  
 少陽之行 不肖而不及也 商人之不肖而不及者易爲懶也

夫子之周遍立於道也 立於道者立於身也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明於德也 明於德者明於心也 少陰之象也  
 孟子之雄辯言於善也 善也者善於事也 太陰之象也  
 子思之中庸行而誠也 誠也者誠於物也 少陽之象也

〈四象草本卷〉<sup>10)</sup>

1.1은 天과 人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1.2는 四象人 즉 인간의 知行之象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四象草本卷에서는 東醫壽世保元과 같이 天과 人間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아직 완전한 구체화를 이루어 설명하고 있지는 못하나, 결국 天과 人間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의식하며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바탕에 깔린 생각은 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四象草本卷에서는 天과 人間을 같이 論하고는 있으나 주로 인간 중심의 사고로 四象人의 知行論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원구조 중 주로 性과 命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天機에 대한 설명은 東醫壽世保元에서 보다는 부족하여 아직 그 理論의 완성이 완전치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1.3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惡 四曰事務

1.4 頷有壽策 臆有經綸 膺有行檢 腹有度量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臀有方略

1.5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 而堯舜未爲加一鞭也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而堯舜肺脾肝腎論之 而衆人未爲少一鞭也 人皆可以爲堯舜者以此  
 人之頷臆膺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 然後 人皆可而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 不爲堯舜者 以此

1.6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 大同於協義 故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則亦極無私也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 各立於擅利 故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則亦極公也  
 頷臆膺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 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 則自棄其知 而不能博通 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咺兮 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 則自棄其行 而不能正行 也

1.7 耳目鼻口 人皆知也 頷臆膺腹 人皆愚也 肺脾肝腎 人皆賢也 頭肩腰臀 人皆不肖也  
 人之耳目鼻口 天也 天知也 人之肺脾肝腎 人也 人賢也 我之頷臆膺腹 我自爲心 而未免愚也 我之免愚 在我也 我之頭肩腰臀 我自爲身 而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 在我也

1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17

1.8 天生萬民 性以慈覺 萬民之生也 有慈覺則生 無慈覺則死 慈覺者 德之所出生也  
 天生萬民 命以資業 萬民之生也 有資業則生 無資業則死 資業者 道之所出生也  
 仁義禮智 忠孝友悌 諸般百善 皆出於慈覺 士農工商 田宅邦國 諸般百用 皆出於資業

1.9 存其心者 資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 而資之者 清 不資者濁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資 心 點於牛也 鷹之資氣 猛於鷓也 心體之清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鷓鷹者 以理推之而猶 然 況於人乎 或相倍徙或相千萬者 豈其生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而然哉

(東醫壽世保元 性命論)<sup>11)</sup>

李濟馬는 性命論에서 天機와 人事를 論한 후에 知行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天機와 人事라고 하는 사이에서 人間의 知와 行이 나온다고 하였다. 우주와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天機, 人事, 知(性), 行(命)의 4가지로 설명하였는데(1.3), 天機의 4가지 요소 즉 天時, 世會, 人倫, 地方 등 시간적, 사회적, 인간적, 자연적 환경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체기관으로는 耳目鼻口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고(1.5), 人事 즉 事務, 交遇, 黨與, 居處를 표현하는 신체의 기관을 몸을 대표하는 肺·脾·肝·腎에 결부시켜 설명한 반면에, 知를 수행하는 신체부위는 頤·臆·臍·腹에, 行을 표현하는 신체 부위는 頭·肩·腰·臀에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1.4). 여기서 인간의 외부에서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미치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은 好善하고 惡惡하므로 堯舜과 같다고 하였고 아울러 堯舜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은 頤臆臍腹의 邪心과 頭肩腰臀의 怠行으로 기인한다고 하였다(1.4~1.7). 따라서 인간이 올바르게 知와 行을 하기 위해서는 邪心과 怠行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러한 邪心과 怠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存其心 養其性하고 修其身 立其命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知行的 등급에 따라 知人, 愚人, 賢人, 不肖人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愚人 不肖人을 면하느냐 아니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우주만물을 느끼고 이해하고 행동으로 변화하는 주체는 우주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자신의 資心資氣하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 聖人이 되는 근본적인 요건이 모두 知行으로 歸結될 수 있다고 보았다(1.7~1.9).<sup>12)</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에 있는 내용이 四象草本卷에서는 총괄적으로 原人編에 담겨있는데, 四象草本卷에서는 주로 人間中心의 思考에서 知行論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東醫壽世保元에 와서는 같은 인간중심의 사고이기는 하나 天機와 人事를 다 자세히 論하여 四象理論의 완성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었다.

## 2. 體質論의 人間觀

李濟馬는 인간은 날 때부터 臟腑의 生理的 不均衡 상태이며 동시에 이 生理的 不均衡이 점차 심화되어 그 한계를 넘어남으로써 病理的 不均衡의 상태를 誘發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그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不均衡의 구조를 肺大肝小, 肝大肺

1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p.13~27

12)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p.62~76

小, 腎大脾小, 脾大腎小의 네가지로 요약하였고, 心身이 건강하고 감정이 잘 조절되는 경우는 生理의 不均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나, 건강이 무너지고 性情이 偏及하여 조절되지 않으면 이러한 不均衡의 狀態는 더욱 커져서 病證을 誘發하게 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體質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臟腑構造와 病理的 進行 方向을 豫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四象醫學的 治療의 指標가 되는 것이다.<sup>13)</sup>

李濟馬가 提示한 體質診斷의 要點은 體質證으로 볼 수 있는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 및 體質病證의 4가지로 要約되며, 李濟馬는 이러한 特性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綜合分析함으로써 體質을 鑑別하였다.

李濟馬는 이러한 體質診斷에 도움이 되는 體質의 特性을 四象醫學 理論 形成過程의 初期에는 四象醫學 草本卷에, 以後 完成段階에 가서는 주로 東醫壽世保元 辨證論에 綜合 整理하여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 病證 등은 후천적인 교육, 가정환경, 경험 등에 의해서 變化할 수 있기 때문에, 治療에 대한 反應 또한 體質診斷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렇게 體形氣像, 性質材幹, 容貌詞氣, 體質病證을 總體的으로 判斷하여, 환자의 體質을 診斷하는 것이 體質診斷의 가장 古典 的인 方法인 동시에 現在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는 方法이다.<sup>14)</sup>

이에 四象醫學草本卷 및 東醫壽世保元의 내용을 體質診斷에 필요한 要素를 基準으로 分類하여 相互

比較해 보고자 한다.

## 1. 身의 觀察

### (1) 體形氣像에 관련된 內容

- 2.1. 太陽人 體形氣像 腦椎之氣勢 盛壯 而腰圍之立勢 孤弱
- 少陽人 體形氣像 胸襟之包勢 盛壯 而膀胱之坐勢 孤弱
- 太陰人 體形氣像 腰圍之立勢 盛壯 而腦椎之起勢 孤弱
- 少陰人 體形氣像 膀胱之坐勢 盛壯 而胸襟之包勢 孤弱

(東醫壽世保元 辨證論)<sup>15)</sup>

體形氣像이란 喜怒哀樂의 性情의 偏差에 의하여 臟腑의 大小가 생기고 이는 肺鼻肝腎의 機能의 差異 뿐만 아니라 외형적 차이로도 나타타므로 辨別의 指標가 되며 外形에 대한 靜的, 分析的 觀察方法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體形氣像에 대한 內容은 四象醫學草本卷에는 나와있지 않으며, 東醫壽世保元에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론 형성과 정의 후기에 좀 더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체질진단의 방법을 연구해 나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 (2) 容貌詞氣에 관련된 內容

- 2.2. 太陽人體形... 其體形腦頤之起勢 強旺 性質疏通 又有果斷
- 少陽人體形 上盛下虛 胸實足輕 剝銳好勇
- 太陰人容貌詞氣起居 有儀而修整正大

13)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14)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1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171, pp.305~315

16)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少陰人體形 矮短 而亦多有長大  
 〈東醫壽世保元 辨證論〉<sup>17)</sup>

體形氣像 理論이 外形에 대한 靜的 觀察이라면 容貌詞氣를 보는 것은 그에 대한 動的, 綜合的 觀察이라 할 수 있다. 體形氣像 理論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굴 모습과 말하는 기운을 同時에 包括하는 理論으로 辨別의 指標가 된다.<sup>18)</sup> 四象草本卷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東醫壽世保元에 좀 더 구체적인 신체의 外形이나 條件을 기록하고 있다.

## 2. 心的 觀察

### (1) 性質材幹에 관한 內容

- 3.1.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 太陽之性氣 若進之而又靜之則非但聞見博也 威儀亦慎也 非但肺氣抑有餘也 肝氣亦補不足也  
 太陰之性氣 若靜之而又進之則非但行檢成也 知慧亦密也 非但肝氣抑有餘也 肺氣亦補不足也  
 少陽之性氣 若舉之而又處之則非但制度也 度量亦明也 非但脾氣抑有餘也 腎氣亦補不足也  
 少陰之性氣 若處之而又舉之則非但功績至也 經綸亦足也 非但腎氣抑有餘也 脾氣亦補不足也  
 〈四象草本卷〉<sup>19)</sup>

- 3.2. 太陽人 雖至愚 其性便便然猶延納也 雖至不肖 人之善惡 亦知之也  
 少陽人 雖至愚 其性恢恢然猶式度也 雖至不肖 人之知愚 亦知之也  
 太陰人 雖至愚 其性卓卓然猶教誘也 雖至不肖 人之勤惰 亦知之也  
 少陰人 雖至愚 其性坦坦然猶撫循也 雖至不肖 人之能否 亦知之也  
 〈東醫壽世保元 擴充論〉<sup>20)</sup>

- 3.3. 太陽人性質 長於疏通 而材幹 能於交遇  
 少陽人性質 長於剛武 而材幹 能於事務  
 太陰人性質 長於成就 而材幹 能於居處  
 少陰人性質 長於端重 而材幹 能於黨與  
 〈東醫壽世保元 辨證論〉<sup>21)</sup>

- 3.4. 太陰之頤 宜戒驕心 太陰之頤 若無驕心 絕世之籌策 必在此也  
 少陰之臆 宜戒矜心 少陰之臆 若無矜心 絕世之經綸 必在此也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此也  
 少陽之腹 宜戒驕心 少陽之腹 若無驕心 絕世之度量 必在此也

- 3.5. 少陰之頭 宜戒奪心 少陰之頭 若無奪心 大人之識見 必在此也  
 太陰之肩 宜戒侈心 太陰之肩 若無侈心 大人之威儀 必在此也

1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171, pp.305~315

18) 宋一炳外, 四象醫學, 김문당, 1997, p.32, p.34, pp.119~133

1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pp.17~20, p.22, p.23, pp.25~32

2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p.50

2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171, pp.305~315

少陽之腰 宜戒懶心 少陽之腰 若無懶心 大人之材  
幹 必在此也  
太陽之腎 宜戒竊心 太陽之腎 若無竊心 大人之方  
略 必在此也

性質材幹이란 四象人이 본디부터 소유하고 있는  
바탕인 性과 情의 合概念을 나타내는 性質과 그 중  
情이 人事인 事務, 交遇, 黨與, 居處로 나타나는 材  
幹을 辨別의 지표로 삼을 수 있다.<sup>22)</sup> 性質材幹에  
대한 內容중 性에 대한 부분은 四象草本卷에 나와있  
으나 材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으며, 東醫壽世  
保元에 나와있는 內容중 3.3.은 3.2.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3.2. 및 3.3.은 性,  
3.4. 및 3.5.는 情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 (2) 恒心과 관련된 內容

- 3.6. 太陰人 恒有怯心  
少陽人 恒有懼心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 3.7. 太陰人 察於外而恒寧靜怯心  
少陽人 察於內而恒寧靜懼心  
太陽人 進一步而恒寧靜急迫之心  
少陰人 進一步而恒寧靜不安定之心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四象人性氣의 항상 進, 舉, 靜, 處하려는 心的 狀  
態와 四象人 情氣의 항상 雌, 雄, 內守, 外勝하고자  
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心的 狀態를 恒心이라고 하  
며, 太陽人의 急迫之心, 少陽人의 懼心, 太陰人의 怯  
心, 少陰人의 不安定之心을 말한다. 그러나 이 恒心  
이 性氣의 自反하는 狀態와 性氣의 過함이 없는 狀  
態, 즉 寧靜한 狀態에서는 道에 이르게 되지만 이것  
이 相反된 상황에서는 病的인 상황으로 物化하게된  
다.<sup>23)</sup> 四象草本卷의 原人編에 나와있는 內容중 일  
반론적인 人間觀에 대한 內容들을 東醫壽世保元에서  
는 恒心의 內容으로 要約하고 있다.

### 3. 證의 觀察

性情의 偏差로 인한 臟腑의 大小는 이미 결정지워  
진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그것이 寧靜한 狀態를 유지  
하지 못하면 病證으로 나타나므로 病證 역시 四象體  
質病證으로 規定될 수 밖에 없고, 逆으로 體質辨別  
의 根據가 될 수 있다.<sup>24)</sup>

#### (1) 完實無病에 관한 內容

- 4.1. 少陰人 飲食善化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完實而無病  
太陽人 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  
〈四象草本卷〉<sup>25)</sup>
- 4.2. 少陰人 面色淡紫則無病 濁黃則有病  
太陰人 面色潤紫則無病  
少陽人 面色潤蒼則無病 白黑則有病

22)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23)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24)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2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



太陽人面色淡白則無病 黑則有病  
 〈四象草本卷〉26)

4.3. 太陽人 少陰人 膚肉清瘦則無病 濁肥則有病  
 太陰人 少陽人 膚肉濁肥則無病 清瘦則有病  
 〈四象草本卷〉27)

4.4. 太陽太陰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身  
 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四象草本卷〉28)

4.5. 太陰人 虛汗則完實也 少陰人 虛汗則大病也  
 太陰人 陽剛堅密則大病也 少陰人 陽剛堅密則完  
 實也  
 太陰人 癘疾惡寒中 能飲冷水 少陰人 癘疾惡寒中  
 不飲冷水  
 太陰人脈 長而緊 少陰人脈 緩而弱  
 太陰人肌肉 堅實 少陰人肌肉 浮軟  
 太陰人容貌詞氣起居 有儀而修整正大 少陰人容貌  
 詞氣 體任自然而簡易小巧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4.6. 太陽人 小便旺多 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 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 則完實而無病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完實無病이란 四象人의 生理的 상황으로 表裏氣가  
 충분히 갖추어진 無病狀態의 健康條件이며 辨別의

기준이 된다. 性情의 차이로 인한 臟腑의 大小가 發  
 生하고 이로 인하여 呼吸, 出納의 太過, 不足을 나  
 타나기 쉽다. 즉 太陽人은 呼散之氣의 太過와 吸聚  
 之氣의 不足이 되기 쉬우므로 吸聚之氣가 保命之主  
 가 되고, 太陰人은 吸聚之氣의 太過와 呼散之氣의  
 不足이 되기 쉬우므로 呼散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少陽人은 納積之氣의 太過와 出放之氣의 不足이 되  
 기 쉬우므로 陰清之氣가 保命之主가 되고, 少陰人은  
 出放之氣의 太過와 納積之氣의 不足이 되기 쉬우므  
 로 陽煖之氣가 保命之主가 된다. 그러므로 保命之主  
 의 不足이 病的 狀態라 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갖추  
 어진 상황은 無病의 狀態라 할 수 있다.29) 四象草  
 本卷 4.1.과 東醫壽世保元 4.6.의 내용이 일치하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脈에  
 대한 內容이 記載되어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四象草  
 本卷에 있는 체질론적 人間觀에 관한 內容들이 동의  
 수세보원에서는 完實無病으로 要約되고 있다.

(2) 病證類型

5.1. 少陰人... 濁黃則有病  
 少陽人... 白黑則有病  
 太陽人... 黑則有病  
 〈四象草本卷〉30)

5.2. 太陽人 少陰人... 濁肥則有病  
 太陰人 少陽人... 清瘦則有病  
 〈四象草本卷〉31)

2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2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2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29) 宋一炳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3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 5.3. 太陽太陰身體多汗則無病 乏汗則有病 少陽少陰身體乏汗則無病 多汗則有病  
 (四象草本卷)<sup>32)</sup> 也 嘔逆吐食者 其病退也 而太陰人尤速也  
 (四象草本卷)<sup>36)</sup>
- 5.4. 太陽少陽寢眠呼吸緩端寬臥靜重則吉  
 太陰少陰寢眠呼吸洪壯轉輾有力則吉  
 太陽少陽大小便滑利則吉 太陰少陰大小便滑利則不吉  
 (四象草本卷)<sup>33)</sup>
- 5.5. 少陰人病中雄壯叫呼 喜欲冷水者則 其病雖重終常效也  
 少陽人病中沈潛安靜 稍稍進食者則 其病雖重終常效也  
 太陰人病中身濕有汗則 其病雖重終常效也  
 太陽人病中胸痛利泄者 其病雖重終常效也  
 (四象草本卷)<sup>34)</sup>
- 5.6. 少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進  
 太陽人病 小便赤黃則 其病退也  
 少陰之病 面色膩滯則 其病進也  
 太陰之病 面色膩滯則 其病退也  
 (四象草本卷)<sup>35)</sup>
- 5.7. 太陽少陽之病 唯嘔逆吐食者 其病進也 而少陽人尤甚也 下利後重者 其病退也 而太陽人尤速  
 太陰少陰之病 下利後重者 其病進也 而少陰尤甚
- 5.8. 少陰人頭痛發熱病 病則病也  
 少陽人腹痛滯病 病則病也  
 (四象草本卷)<sup>37)</sup>
- 5.9. 少陰人頭痛病 氣色屢變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  
 少陽人滯痢病 浮腫有漸則 其病非輕症也 十分重症也  
 (四象草本卷)<sup>38)</sup>
- 5.10. 眼明手捷少陰之吉祥 能食安寢少陽之吉祥  
 肉肥汗多太陰之吉祥 肉瘦溺數太陽之吉祥  
 精神陷短少陰之凶證 語靜微弱太陰之凶證 肉脫鮮食少陽之凶症 肉浮多食 太陽之凶證  
 (四象草本卷)<sup>39)</sup>
- 5.11. 少陰人平時屢口意者病也 霍亂時屢口意者病解也  
 太陰人平時屢咳者病也 重病時屢咳者病解也  
 少陽人大便澁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 非惡症也  
 太陽人小便澁短者病也 二時間屢次則 非惡症也  
 (四象草本卷)<sup>40)</sup>
- 5.12. 少陽之面腫 少陰之眩暈 太陽之食脹 太陰之昏倦 眞是重症 終非輕證  
 (四象草本卷)<sup>41)</sup>

3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5)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7)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3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5.13. 少陰之外感鼻涕太多 太陽之外感鼻涕太少 少陽之  
外感肢節重痛 太陰之外感肢節微痛

〈四象草本卷〉<sup>42)</sup>

5.14. 太陰之執證若有可疑則當占于六脉之緊長 少陽之  
執證若有可疑則當占於夜睡之盜汗也 少陰之 執  
證平居呼吸如常而有時有太息 太陽之執證平居  
飲食如常而有時有就嘔逆

〈四象草本卷〉<sup>43)</sup>

5.15. 少陽人之急病欲占其吉凶即 當視於肘外之汗不  
汗也

〈四象草本卷〉<sup>44)</sup>

5.16. 太陽人 噎膈 則胃脘之上焦 散豁如風  
太陰人 利病 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  
少陽人 大便不通 則胸膈必如烈火  
少陰人 泄瀉不止 則臍下必如水冷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5.17. 少陽人病 無論表裏病 手足掌心 有汗 則病解 則  
手足掌心 不汗 則雖全體皆汗 而病不解

〈東醫壽世保元 辨證論〉

保命之主의 不足된 상황, 즉 太陽人의 呼散之氣,  
太陰人의 吸聚之氣, 少陽人의 納積之氣, 少陰人의  
出放之氣가 太過한 상황에서는 病證을 나타내게 된  
다.<sup>45)</sup> 四象草本卷의 內容중 5.1~5.3., 5.8.,  
5.9., 5.13.은 病證, 5.14.는 病의 診斷, 5.6.,

5.7.은 病의 進退, 5.4., 5.5., 5.10., 5.11.,  
5.12.는 病의 豫後에 관한 內容이며, 東醫壽世保元  
의 內容중 5.16.은 各 四象人의 特異病證에 관한  
內容이다. 四象草本卷의 5.15.와 東醫壽世保元의  
5.17.은 모두 少陽人의 病解에 관한 內容이나 病解  
의 기준이 되는 汗出部位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로보아 약간의 內容차이는 보이나  
四象草本卷에도 各 四象人의 病證에 대한 內容이 기  
록되어 있으며, 이는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좀 더  
간략하고 깊이있게 발전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 3. 일부 藥材 및 處方에 대한 考察

#### (1) 鹿茸에 대하여

6.1. 獐肝爲少陰人藥則眞의 無疑 鹿茸爲少陰人藥則猶  
加疑 少陰人有服鹿茸顯效 其後又見太陰人二人  
有服鹿血顯效 皆未得其實不敢眞決

〈四象草本卷〉<sup>46)</sup>

鹿茸이 少陰人藥인지 太陰人藥인지에 대하여 確  
信을 가지지 못하였다.

#### (2) 黃芪 및 甘草에 대하여

7.1. 肺之病 閻氣多而開氣少 故其藥宜通 而不宜塞也  
牛黃熊膽麝香麻黃杏仁山藥桔梗黃芩皂角之類  
通力有餘 故肺病之吉藥也 蕎麥葡萄木瓜 黃芪  
甘草之類 塞力有餘 故肺病之凶藥也<sup>47)</sup>

4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5) 宋一柄外, 四象醫學, 집문당, 1997, p.32, p.34, pp.119~133

4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7) 李濟馬, 東武遺稿, 海東醫學社, 1999, p.165

7.2. 甘草生用則補肝 灸用則補脾<sup>48)</sup>

少陰人 藥材인 黃芪 및 甘草를 太陽人 治療에 活用하기도 하여 아직 四象醫學 理論이 形成되어 가는 과정 중임을 알 수 있다.

4. 四象草本卷에 記載된 四象人의 處方<sup>49)</sup>

少 陽 人	敗毒散	內容: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車前子, 木通, 生地, 赤茯苓, 防風各二錢, 荊芥五分, 甘草三分 主治: 少陽外感
	石膏敗毒散	內容: 敗毒散加石膏二錢 主治: 運氣瘧疾 熱多寒少之證
	柴胡敗毒散	內容: 敗毒散加柴胡一錢 主治: 上同
	玄參敗毒散	內容: 敗毒散加玄參一錢 主治: 治咽喉
	六味地黃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 枸杞子各三錢, 白朮, 茯苓, 澤瀉各二錢, 牡丹皮一錢 主治: 內傷虛勞虛損
	地骨皮地黃湯	內容: 六味地黃湯加地骨皮 貝母各二錢 主治: 盜汗咳嗽
	知柏地黃湯	內容: 六味地黃湯加黃柏 知母各二錢 主治: 陰虛便血
	消毒散火湯	內容: 玄參, 地骨皮, 連翹, 黃連, 山梔子, 防風, 荊芥, 牛蒡子各一錢 主治: 小兒痘疹, 癩疹
	三黃石膏湯	主治: 三焦積熱 紅系丹毒 走胛肢體或以痘疹毒 遍滿胸壁二症

少 陽 人	澤瀉湯	內容: 玄參, 山梔子, 黃連, 草龍膽, 羌活, 防風各一錢 主治: 大人中風 小兒急驚風
	少陽利水湯	內容: 黑朮爲主藥, 羌活, 防風, 豬苓, 澤瀉, 赤茯苓, 木通, 黃柏各三錢
	五苓散	內容: 澤瀉三錢, 赤茯苓, 豬苓各二錢, 滑石, 柴胡各一錢
	益元散	內容: 滑石末二錢半, 甘草末五分, 朱砂末一分 主治: 暑氣腹痛
	導赤散	內容: 生地黃三錢, 木通二錢 主治: 外感內熱俱症
	白虎湯	內容: 石膏四錢, 知母二錢, 粳米少許 主治: 運氣 熱煩 發狂
	陷胸湯	內容: 黃連三錢, 芒硝二錢, 甘遂一錢 主治: 運氣 結胸 水逆 結胸過時則水逆 水逆過時則危
	朱砂安神湯	內容: 黃連, 朱砂, 枸杞子, 白茯苓, 各等分作丸 主治: 驚悸 健忘
	單黃連湯	內容: 黃連一兩 主治: 利病
	肥兒丸	內容: 天黃連二兩, 胡黃連, 使君子, 麥芽, 白茯苓各五錢, 蘆薈煨二錢半 主治: 小兒疳病
莞花繁甲散	內容: 莞花, 繁甲等分 主治: 小兒瘡病	
甘遂天一丸	內容: 甘遂一錢, 朱砂, 輕粉各一分, 分作八丸 主治: 上焦咽喉, 中焦暑證, 下焦痢疾, 小兒驚風, 大人胸痞, 凡大便不快者	

48)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4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20, p.22, p.23, pp.25~32

少 陽 人	輕粉丸	主治: 癩病, 足下遂則堪用, 手不仁者堪用
	暖將軍湯	內容: 熟地黃七錢, 山藥, 白茯苓, 澤瀉, 玄參, 瓜蒌仁各二錢, 丹皮, 防風, 獨活, 貝母, 前胡, 車前子, 羌活, 荊芥, 苦參各一錢 主治: 氣喘消痰
	參瓜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 玄參, 瓜蒌仁, 茯苓, 澤瀉各一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地骨, 石膏各一錢 主治: 口渴
	加味既濟湯	內容: 生地黃四錢, 忍冬藤三錢, 柴胡, 玄參各二錢, 前胡, 瓜蒌仁, 金銀花, 牛蒡子, 知母, 黃柏, 羌活, 荊芥, 防風各一錢, 加石膏五錢, 滑石二錢尤妙
	清腸散火湯	內容: 忍冬藤, 赤茯苓, 澤瀉, 山茱萸, 生地黃, 瓜蒌仁各二錢, 知母, 覆盆子, 車前子, 羌活, 獨活, 防風, 荊芥各一錢
	苦參敗毒散	內容: 苦參, 赤茯苓各二錢, 豬苓, 澤瀉, 羌活, 獨活, 前胡, 柴胡, 防風, 車前子 各一錢半, 荊芥一錢
	瓜蒌仁地黃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 赤茯苓各二錢, 澤瀉, 瓜蒌仁各一錢半, 牡丹皮, 玄參, 獨活各一錢,
	黃柏地黃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 赤茯苓, 澤瀉各二錢, 黃柏, 玄參各一錢半, 車前子, 瓜蒌仁, 羌活, 防風, 荊芥, 前胡, 獨活各一錢
	防風通聖散	內容: 滑石, 生地黃各二錢, 防風, 石膏各一錢, 羌活, 獨活, 前胡, 薄荷, 荊芥, 牛蒡子, 梔子各一錢半 主治: 發熱陽毒證
	千金導赤散	內容: 生地黃四錢, 木通, 黃連, 柴胡, 山茱萸, 覆盆子各二錢

少 陽 人	柴胡瓜蒌湯	內容: 生地黃四錢, 木通, 瓜蒌仁各二錢, 山茱萸, 覆盆子, 黃連, 苦參, 柴胡, 前胡, 內容: 主治: 獨活各一錢
	白虎湯	內容: 生地, 石膏, 各四錢, 知母二錢, 加山茱萸, 覆盆子尤妙 主治: 譫語症
	渡海白虎湯	內容: 石膏, 生地黃, 知母, 覆盆子, 山茱萸, 肉蓯蓉各二錢, 苦參, 枸杞子各一錢 主治: 譫語症
	豬苓白虎湯	內容: 石膏, 生地四錢, 知母二錢, 黃柏, 澤瀉, 豬苓, 赤茯苓一錢 主治: 大小便不通證
	陽毒白虎湯	內容: 石膏, 生地黃各四錢, 荊芥, 牛蒡子, 羌活各一錢, 獨活, 玄參, 柴胡, 山梔子, 忍冬藤, 薄荷各五分
	七味苦參湯	內容: 生地黃四錢, 苦參, 知母, 山茱萸, 覆盆子各二錢, 赤茯苓, 澤瀉各一錢
	八味苦參湯	內容: 上方 加木通, 丹皮 主治: 吐血, 嘔吐, 腸病, 痞滿症
	水火既濟湯	內容: 生地黃, 熟地黃, 知母, 黃柏, 山茱萸, 覆盆子, 苦參, 柴胡, 赤茯苓, 澤瀉, 肉蓯蓉, 枸杞子各一錢 主治: 腹痛, 嘔吐, 痞滿
	七味豬苓湯	內容: 生地黃四錢, 山茱萸, 覆盆子, 澤瀉, 赤茯苓各二錢, 豬苓, 黃柏各 一錢
	參苓湯	內容: 苦參, 赤茯苓各二錢, 豬苓, 澤瀉, 車前子, 瓜蒌仁, 羌活, 獨活, 前胡, 柴胡, 荊芥, 防風各一錢 主治: 裏症
忍冬藤茯苓湯	內容: 忍冬藤四錢, 生地黃, 赤茯苓, 澤瀉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各一錢, 主治: 人中近處小腫, 腎腫	

少陽人	獨活防風湯	內容: 忍冬藤, 熟地黃各四錢, 山藥, 黃柏, 獨活各二錢, 牛膝, 車前子, 羌活, 荊芥, 防風各一錢
	加味破瘀湯	內容: 每貼沒藥末一錢加入爲好 主治: 產後血塊腹痛
少陰人	藿香正氣散	內容: 藿香, 蘇葉, 大腹皮, 蒼朮, 陳皮, 厚朴, 半夏, 甘草各一錢. 入薑三棗二 同煎 主治: 外感通用
	不換金正氣散	內容: 上方 減蘇葉, 大腹皮
	人參養胃湯	內容: 上方 加人參, 草果
	香蘇散	內容: 香附子, 蘇葉, 川芎, 蒼朮, 陳皮, 甘草各一錢 主治: 四時運氣
	二香散	內容: 上方 加香薷, 白扁豆 主治: 治泄瀉, 霍亂
	四君子湯	內容: 人參, 白朮, 灸甘草, 白何首烏各一錢 主治: 脾元虛弱
	四物湯	主治: 脾元損傷
	安胎飲	內容: 上方 加蘇葉, 陳皮 主治: 孕婦病
	四君子合四物湯 (八珍湯)	內容: 當歸, 川芎, 白芍藥, 砂仁各一錢 主治: 少陰人虛勞
	十全大補湯	內容: 上方 加桂皮, 黃芪 主治: 少陰人虛勞
陰人	錢氏異功散	主治: 脾胃虛弱, 飲食鮮少
	補中益氣湯	內容: 黃芪蜜炙三錢, 人參, 灸甘草各一錢, 白朮, 當歸各七分, 陳皮五分 主治: 內傷頭痛 眩暈 憎寒 壯熱 不知食味 四體無力
	蘇合香元	內容: 白朮, 木香, 丁香, 沈香, 訶子, 藿櫬, 香附子, 蘇合油, 安息香各等分 主治: 一切氣病疾
	枳朮丸	內容: 枳殼, 白朮 主治: 噯氣吞酸
	川當湯	內容: 當歸三錢, 川芎二錢 主治: 孕婦產前產後病

少陰人	導痰湯	內容: 半夏, 白朮各二錢, 陳皮, 灸甘草, 南星, 枳殼各一錢, 入生薑五片, 大棗 二枚 主治: 風痰
	香丹白元子	內容: 沈香, 南星, 半夏, 白附子 主治: 大人風痰小兒慢驚風
太陰人	半薑湯	內容: 半夏, 生薑各三錢, 主治: 胸膈痰飲
	太陰麻黃湯	內容: 麻黃三錢, 杏仁, 黃芩各二錢 主治: 外感俱證 無汗惡寒 嘔逆或嘔吐涎沫
	寧神承陰煎	內容: 桔梗二錢, 麥門冬, 五味子, 山藥, 遠志, 元肉, 黃芩, 杏仁各一錢, 白果五分 主治: 風寒緊觸
	九味天門冬湯	內容: 天門冬, 麥門冬, 山藥, 遠志, 石菖蒲, 酸棗仁, 元肉, 柏子仁, 甘菊花各一錢 主治: 思慮 怔忡 虛弱 不眠 遺精 夢泄等證
	清心側柏葉湯	內容: 天門冬, 側柏葉各三錢, 蓮子肉, 生藕節, 白茅根各一錢 主治: 吐血
	解熱升陰湯	內容: 葛根, 粟本各四錢, 天門冬, 麥門冬, 黃芩, 蘿菴子, 升麻各一錢半, 五味子, 杏仁, 桔梗, 白芷各一錢 主治: 全身濕痞
	升清解鬱湯	內容: 天門冬, 葛根, 黃芩, 蘿菴子各二錢, 升麻, 五味子, 麥門冬, 酸棗仁, 桔梗, 杏仁, 麻黃, 大黃各一錢 主治: 痰鬱症
	山藥和胃煎	內容: 山藥, 薏米, 黃粟各三錢 主治: 胃氣不和 飲食無味
	皂角黃芩大黃湯	內容: 大黃三錢, 黃芩二錢, 皂角一錢 主治: 疫氣 感冒 大便秘結
	石菖蒲酒	主治: 痞滿, 沈滯
麥龍湯	內容: 麥門冬, 杏仁各二錢, 麻黃, 桔梗, 元肉, 遠志, 石菖蒲, 天門冬, 黃芩, 五味子, 蘿菴子各一錢 主治: 大下血	

太 陰 人	治淋湯	內容: 麥門冬, 山藥, 桔梗, 五味子, 蘿菥子, 元肉, 黃芩, 薏米各二錢, 龍骨, 柏子仁, 杏仁, 天門冬, 石菖蒲, 升麻各一錢, 乾栗七枚
	桔麥石龍湯	內容: 桔梗, 麥門冬各二錢, 苡米, 五味子, 元肉, 遠志, 杏仁, 麻黃, 石菖蒲, 蘿菥子各二錢 主治: 上虛 下浮氣
	葛根蘿菥子湯	內容: 葛根四錢, 蘿菥子二錢, 黃芩, 桔梗, 藥本, 白芷, 升麻, 大黃各一錢 主治: 小便不利及淋疾
	乾栗葛根湯	內容: 乾栗二兩, 葛根四錢, 蘿菥子, 小白皮各二錢, 麻黃, 杏仁, 麥門冬, 桔梗, 石菖蒲各一錢 主治: 腸病, 痢疾
	升陰葛根湯	內容: 葛根三錢, 升麻二錢, 桔梗, 杏仁, 棗仁, 黃芩, 白芷, 蘿菥子各一錢
	補肺生脈散	內容: 麥門冬, 山藥, 桔梗, 五味子, 黃芩, 薏米, 乾栗各一錢
	清升葛根湯	內容: 葛根三錢, 升麻二錢, 麥門冬, 桔梗, 五味子, 天門冬, 黃芩, 白芷, 酸棗仁, 杏仁, 藥本各一錢 主治: 便滑則減藥本 便秘則加 大黃
	葛根二黃湯	內容: 葛根, 薏米各一錢半, 麥門冬, 蘿菥子, 桔梗各一錢, 白芷, 麻黃, 黃芩, 升麻, 杏仁各七錢
	加葛根湯	內容: 葛根, 苡米各一錢, 麥門冬一錢半, 蘿菥子, 桔梗, 石菖蒲, 元芩, 五味子, 麻黃各一錢
	天門冬潤肺湯	內容: 天門冬三錢, 黃芩二錢, 麥門冬, 酸棗仁, 升麻, 葛根, 桔梗, 杏仁, 五味子, 大黃各一錢 主治: 目痛 鼻乾 憎寒壯熱 頭痛 腰痛燥澀者
黃栗小白皮湯	內容: 小白皮五錢, 桔梗三錢 主治: 痢疾	

太 陰 人	清心山藥湯	內容: 山藥三錢, 遠志二錢, 天門冬, 麥門冬, 蓮子, 柏子仁, 酸棗仁, 元肉, 桔梗, 黃芩, 石菖蒲各一錢, 甘菊五分 主治: 虛勞 夢泄 腹痛 泄瀉 舌卷不語中風
	升麻開腦湯	內容: 升麻三錢, 麥門冬, 天門冬, 五味子, 酸棗仁, 黃芩, 麻黃, 桔梗, 杏仁, 葛根, 款冬花, 白芷, 大黃各一錢 主治: 寒厥四, 五日汗不出者
	桔梗元肉湯	內容: 葛根, 桔梗各二錢, 麥門冬, 黃芩, 元肉各一錢半, 白芷, 五味子, 椿皮各一錢 主治: 小兒腿膝曲而無力者
	註調胃湯	主治: 吐血
	荔枝核湯	內容: 荔枝核三錢, 蘿菥子, 黃芩各一錢半, 柏子仁, 白芷, 杏仁, 浮萍, 大黃各一錢 主治: 顏疝症 囊腫 玉莖水腫
太 陽 人	乾柿湯	內容: 乾柿, 五加皮, 蕎麥各三錢 主治: 太陽人表證
	獼猴桃湯	內容: 獼猴桃, 葡萄各三錢, 木果二錢, 白芍藥, 生甘草各一錢 主治: 太陽人裏證

### 5. 東醫壽世保元에 記載된 四象人의 處方<sup>50)</sup>

少 陰 人	黃芪桂枝附子湯	內容: 桂枝, 黃芪各三錢, 白芍藥二錢, 當歸, 炙甘草各一錢, 炮附子一錢或二錢, 薑三片, 棗二枚 主治: 亡陽危病
	人參桂枝附子湯	內容: 人參四錢, 桂枝三錢, 白芍藥, 黃芪各二錢, 當歸, 炙甘草各一錢, 炮附子一錢或二錢, 薑三片, 棗二枚 主治: 亡陽危病

5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p.73~293

少陰人	升陽益氣附子湯	內容: 人蔘, 桂枝, 白朮藥, 黃芪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炙甘草各一錢, 炮附子一錢或二錢, 薑三片, 棗二枚 主治: 亡陽危病
	人蔘官桂附子湯	內容: 人蔘五錢或一兩, 官桂, 黃芪各三錢, 白朮藥二錢, 當歸, 炙甘草各一錢, 炮附子二錢或二錢五分, 薑三片, 棗二枚 主治: 亡陽危病
	升陽益氣湯	內容: 人蔘, 桂枝, 黃芪, 白朮藥各二錢, 白何首烏, 官桂, 當歸, 炙甘草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補中益氣湯	內容: 人蔘, 黃芪各三錢, 炙甘草, 白朮, 當歸, 陳皮各一錢, 藜香, 蘇葉各三分或各五分, 薑三片, 棗二枚
	黃芪桂枝湯	內容: 桂枝三錢, 白朮藥, 黃芪各二錢, 白何首烏, 當歸, 炙甘草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川芎桂枝湯	內容: 桂枝三錢, 白朮藥二錢, 川芎, 蒼朮, 陳皮, 炙甘草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芎歸香蘇散	內容: 香附子二錢, 紫蘇葉, 川芎, 當歸, 蒼朮, 陳皮, 炙甘草各一錢, 蔥白五莖, 薑三片, 棗二枚
	藜香正氣散	內容: 藜香一錢五分, 紫蘇葉一錢, 蒼朮, 白朮, 半夏, 陳皮, 青皮, 大腹皮, 桂皮, 乾薑, 益智仁, 炙甘草各五分, 薑三片, 棗二枚
	八物君子湯	內容: 人蔘二錢, 黃芪, 白朮, 白朮藥, 當歸, 川芎, 陳皮, 炙甘草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白何烏君子湯	內容: 八物君子湯 以白何首烏 易人蔘
十全大補湯	內容: 八物君子湯 用蔘芪各一錢, 加白何首烏官桂各一錢	
獨蔘八物湯	內容: 八物君子湯 用人蔘一兩, 黃芪一錢	

少陰人	香附子八物湯	內容: 香附子, 當歸, 白朮藥各二錢, 白朮, 白何首烏, 川芎, 陳皮, 炙甘草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主治: 思慮傷脾 咽乾舌燥 隱隱有頭痛
	桂枝半夏生薑湯	內容: 生薑三錢, 桂枝, 半夏各二錢, 白朮藥, 白朮, 陳皮, 炙甘草各一錢 主治: 虛寒嘔吐水結胸等證
	香砂養胃湯	內容: 人蔘, 白朮, 白朮藥, 炙甘草, 半夏, 香附子, 陳皮, 乾薑, 山楂肉, 砂仁, 白豆蔻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赤白何烏寬中湯	內容: 白何首烏, 赤何首烏, 良薑, 乾薑, 青皮, 陳皮, 香附子, 益智仁各一錢, 棗二枚 主治: 四體倦怠 小便不快 陽道不興 將有浮腫之漸
	人蔘白何烏寬中湯	內容: 赤白何烏寬中湯 以人蔘 易赤何首烏
	當歸白何烏寬中湯	內容: 赤白何烏寬中湯 以當歸 易赤何首烏
	寬中湯	內容: 乾薑, 良薑, 青皮, 陳皮 等分作湯丸 主治: 少陰人 小便不快 陽道不興 四體倦怠 無力者
	蒜蜜湯	內容: 白何首烏, 白朮, 白朮藥, 桂枝, 茵陳, 益母草, 赤石脂, 鶯粟殼各一錢, 薑三片, 棗二枚, 大蒜五根, 清蜜 半匙 主治: 痢疾
	鷄蔘膏	內容: 人蔘一兩, 桂皮一錢, 鷄一首 主治: 瘧疾痢疾
	巴豆丹	內容: 巴豆一粒 去殼取粒 主治: 巴豆全粒 下利 半粒 化積
人蔘陳皮湯	內容: 人蔘一兩, 生薑, 砂仁, 陳皮各一錢, 棗二枚	
人蔘吳茱萸湯	內容: 人蔘一兩, 吳茱萸, 生薑各三錢, 白朮藥, 當歸, 官桂各一錢	
官桂附子理中湯	內容: 人蔘三錢, 白朮, 炮乾薑, 官桂各二錢, 白朮藥, 陳皮, 炙甘草各一錢, 炮附子一錢或二錢	



少陰	吳茱萸附子理中湯	內容: 人蔘, 白朮, 炮乾薑, 官桂各二錢, 白朮藥, 陳皮, 炙甘草, 吳茱萸, 小茴香, 破古紙各一錢, 炮附子各一錢或二錢
	白何烏附子理中湯	內容: 白何首烏, 白朮炒, 白朮藥微炒, 桂枝, 炮乾薑各二錢, 陳皮, 炙甘草, 炮附子各一錢
人	白何烏理中湯	內容: 白何首烏, 白朮, 白朮藥, 桂枝, 炮乾薑各二錢, 陳皮, 炙甘草各一錢
	荊防敗毒散	內容: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荊芥, 防風, 赤茯苓, 生地黃, 地骨皮, 車前子 各一錢 主治: 頭痛寒熱往來
少陽	形防導赤散	內容: 生地黃三錢, 木通二錢, 玄蔘, 瓜蒌仁各一錢五分,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各一錢 主治: 頭痛胸膈煩熱
	荊防瀉白散	內容: 生地黃三錢, 茯苓, 澤瀉各二錢, 石膏, 知母, 羌活, 獨活, 荊芥, 防風各一錢 主治: 頭痛膀胱炎躁
少陽	豬苓車前子湯	內容: 澤瀉, 茯苓各二錢, 豬苓, 車前子各一錢五分, 知母, 石膏, 羌活, 獨活, 荊芥, 防風各一錢 主治: 頭腹痛有泄瀉
	滑石苦蔘湯	內容: 澤瀉, 茯苓, 滑石, 苦蔘各二錢, 天黃蓮, 黃柏, 羌活, 獨活, 荊芥, 防風 各一錢 主治: 腹痛無泄瀉
人	獨活地黃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二錢, 茯苓, 澤瀉各一錢五分, 牡丹皮, 防風, 獨活 各一錢 主治: 食滯痞滿
	荊防地黃湯	內容: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各二錢, 車前子, 羌活, 獨活, 荊芥, 防風各一錢 主治: 無論頭腹痛痞滿泄瀉 凡虛弱者
少陰	十二味地黃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二錢, 白茯苓, 澤瀉各一錢五分, 牡丹皮, 地骨皮, 玄蔘, 枸杞子, 覆盆子, 車前子, 荊芥, 防風各一錢

少陽	地黃白虎湯	內容: 石膏五錢或一兩, 生地黃四錢, 知母二錢, 防風, 獨活各一錢
	陽毒白虎湯	內容: 石膏五錢或一兩, 生地黃四錢, 知母二錢, 荊芥, 防風, 牛蒡子各一錢 主治: 陽毒發斑便秘
少陽	涼膈散火湯	內容: 生地黃, 忍冬藤, 連翹各二錢,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各一錢 主治: 上消
	忍冬藤地骨皮湯	內容: 忍冬藤四錢, 山茱萸, 地骨皮各二錢, 天黃蓮, 黃柏, 玄蔘, 苦蔘, 生地黃, 知母, 山梔子, 枸杞子, 覆盆子, 荊芥, 防風, 金銀花各一錢 主治: 中消
少陽	熟地黃苦蔘湯	內容: 熟地黃四錢, 山茱萸二錢, 白茯苓, 澤瀉各一錢五分, 知母, 黃柏, 苦蔘 各一錢 主治: 下消
	木通大安湯	內容: 木通, 生地黃各五錢, 赤茯苓二錢, 澤瀉, 車前子, 天黃蓮, 羌活, 防風, 荊芥各一錢 主治: 浮腫
人	黃連清腸湯	內容: 生地黃四錢, 木通, 茯苓, 澤瀉各二錢, 豬苓, 車前子, 天黃蓮, 羌活, 防風各一錢 主治: 痢疾
	朱砂益元散	內容: 滑石二錢, 澤瀉一錢, 甘遂五分, 朱砂一分 主治: 夏月滌暑
少陰	甘遂天一丸	內容: 甘遂末一錢, 輕粉末一分 和勻糊丸 分作十九 主治: 病欲頭腦滌火 則輕粉爲君 病欲胸膈下水 則甘遂爲君
	輕粉甘遂龍虎丹	內容: 甘遂一錢, 輕粉五分 分作十九 主治: 病欲頭腦滌火 則輕粉爲君 病欲胸膈下水 則甘遂爲君
少陰	輕粉甘遂雌雄丹	內容: 輕粉, 甘遂 各等分作十九 主治: 病欲頭腦滌火 則輕粉爲君 病欲胸膈下水 則甘遂爲君

少陽人	乳香沒藥輕粉丸	內容: 輕粉一錢, 乳香, 沒藥, 甘遂各五分 分作三十九丸
	太陰調胃湯	內容: 薏苡仁, 乾粟各三錢, 蘿菥子二錢, 五味子,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各一錢
太陰人	葛根解肌湯	內容: 葛根三錢, 黃芩, 藥本各一錢五分, 桔梗, 升麻, 白芷各一錢
	調胃升清湯	內容: 薏苡仁, 乾粟各三錢, 蘿菥子一錢五分, 麻黃, 桔梗, 麥門冬, 五味子, 石菖蒲, 遠志, 天門冬, 酸棗仁, 龍眼肉各一錢
	清心蓮子湯	內容: 蓮子肉, 山藥各二錢, 天門冬, 麥門冬, 遠志, 石菖蒲, 酸棗仁, 龍眼肉, 栝子仁, 黃芩, 蘿菥子各一錢, 甘菊花三分
	麻黃定喘湯	內容: 麻黃三錢, 杏仁一錢五分, 黃芩, 蘿菥子, 桑白皮, 桔梗, 麥門冬, 款冬花各一錢, 白果二十一箇 炒黃色
	麻黃定痛湯	內容: 薏苡仁三錢, 麻黃, 蘿菥子各二錢, 杏仁, 石菖蒲, 桔梗, 麥門冬, 五味子, 使君子, 龍眼肉, 栝子仁各一錢, 乾粟七箇
	熱多寒少湯	內容: 葛根四錢, 黃芩, 藥本各二錢, 蘿菥子, 桔梗, 升麻, 白芷各一錢
	寒多熱少湯	內容: 薏苡仁三錢, 蘿菥子二錢, 麥門冬, 桔梗, 黃芩, 杏仁, 麻黃各一錢, 乾粟七箇
	葛根承氣湯	內容: 葛根四錢, 黃芩, 大黃各二錢, 升麻, 桔梗, 白芷各一錢
	葛根大承氣湯	內容: 葛根承氣湯 加大黃二錢
	葛根小承氣湯	內容: 葛根承氣湯 減大黃一錢
太陽人	調理肺元湯	內容: 麥門冬, 桔梗, 薏苡仁各二錢, 黃芩, 麻黃, 蘿菥子各一錢
	鹿茸大補湯	內容: 鹿茸二三四錢, 麥門冬, 薏苡仁各一錢五分, 山藥, 天門冬, 五味子, 杏仁, 麻黃各一錢 主治: 虛弱人 表症寒證多者

太陰陰人	拱辰黑元丹	內容: 鹿茸四五兩, 山藥, 天門冬各四兩, 鱉蚶十二兩, 麝香五錢 主治: 虛弱人 裏症多者
	皂角大黃湯	內容: 升麻, 葛根各三錢, 大黃, 皂角各一錢
	葛根浮萍湯	內容: 葛根三錢, 蘿菥子, 黃芩各二錢, 紫背浮萍, 大黃各一錢, 鱉蚶十箇 主治: 浮腫 裏症熱多者
	乾粟鱉蚶湯	內容: 乾粟百箇, 鱉蚶十箇 湯服或灸食, 黃粟, 鱉蚶十箇 作末別用黃粟湯水 調下 主治: 浮腫 表症寒多者
	乾粟椶根皮湯	內容: 乾粟一兩, 椶根白皮三四五錢 主治: 痢疾
	瓜蒂散	內容: 瓜蒂炒黃爲末三五分 主治: 卒中風 臆膈 格格有窒塞聲及目瞤者
	熊膽散	內容: 熊膽三五分
	麝香散	內容: 麝香三五分
	石菖蒲遠志散	內容: 遠志末一錢, 石菖蒲末一錢, 猪牙皂角末三分
	麥門冬遠志散	內容: 麥門冬三錢, 遠志, 石菖蒲各一錢, 五味子五分
太陽人	牛黃清心元	內容: 山藥七錢, 蒲黃炒二錢五分, 犀角二錢, 大豆黃卷炒一錢七分, 麥門冬, 黃芩各一錢五分, 桔梗, 杏仁各一錢三分, 牛黃一錢二分, 羚羊角, 龍腦, 麝香各一錢, 白斂七分
	五加皮壯脊湯	內容: 五加皮四錢, 木瓜, 青松節各二錢, 葡萄根, 蘆根, 櫻桃肉各一錢, 蕎麥米半匙, 青松節闕材則以好松葉代之 主治: 表證
	獼猴藤植腸湯	內容: 獼猴桃四錢, 木瓜, 葡萄根各二錢, 蘆根, 櫻桃肉, 五加皮, 松花各一錢, 杵頭糖半匙 獼猴桃闕材則以藤代之 主治: 裏證

四象草本卷에서는 내용의 순서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 太陽人의 順이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順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四象草本卷에서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順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四象草本卷에서는 少陽人에 대해 먼저 연구하고 이에 대해 동의수세보원에서 보완하였으며, 太陰人, 少陰人에 대해서는 後에 연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四象草本卷의 太陰人方 中 九味天門冬湯, 少陰人方 中의 半薑湯 등은 그 處方 내용 및 運用精神으로 볼 때 後에 東醫壽世保元에서 淸心蓮子湯과 桂枝半夏生薑湯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四象草本卷은 李濟馬의 著書이며 東醫壽世保元 著述 이전의 初期 著書임을 알 수 있다.<sup>51)</sup>

이 외에도 四象草本卷의 몇 개의 처방은 동의수세보원에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며 몇 개는 東醫壽世保元의 新定方으로 변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少陽人方의 甘遂天一丸과 乳香沒藥輕粉丸은 東醫壽世保元에 그대로 전해져 사용된다. 四象草本卷의 少陽人方에서 가감법을 많이 설명하고 外感에 사용한다고 한 敗毒散은 東醫壽世保元에서 荊防敗毒散으로, 六味地黃湯은 荊防地黃湯으로, 益元散은 朱砂益元散으로, 生地黃과 木通만 사용한 導赤散은 形防導赤散으로 발전하여 少陽人의 新定方으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太陰人方의 補肺生脈散은 生脈散의 개념으로 東醫壽世保元에서 補肺元湯으로, 解熱升陰湯은 熱多寒少湯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外 九味天門冬湯은 淸心蓮子湯으로, 太陰麻黃湯은 麻黃定喘湯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sup>52)</sup>

또한 少陰人 處方을 예로 들어 볼 때, 그 내용

들이 初期에는 體質病證을 治療한다기 보다는 疾病治療 中心이었다고 보이며, 後에 體質證을 다루다보니 表裏의 개념, 氣運의 乘降을 病의 輕重緩急 및 順逆에 따라 포괄적으로 運用하다 보니, 箇箇의 處方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졌으며, 결국 포괄적인 病證運用을 하는 處方들로 그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III. 結 論

以上の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東醫壽世保元의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에 있는 내용이 四象草本卷에서는 총괄적으로 原人編에 담겨있는데, 四象草本卷에서는 東醫壽世保元보다는 天機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나 그 기본정신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四象草本卷은 四象理論이 완성되기는 과정 중에 李濟馬가 初期에 가졌던 생각들을 담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四象草本卷의 病變編에서는 주로 體質素證에 관한 내용이 收錄되어있으며, 東醫壽世保元에 와서는 體質素證의 내용이 줄어들면서 體質病證論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四象草本卷에서는 주로 知行論의 形象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東醫壽世保元에 와서는 體形氣像論으로 바뀌었고 四象草本卷에는 없던 容貌詞氣論이 추가되었으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주로 體形氣像과 容貌詞氣 및 性質材

51) 李壽瓊 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의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Vol. 11, No.1, 1999, pp.63~77

52) 李壽瓊 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의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Vol. 11, No.1, 1999, pp.63~77

幹의 방법으로 體質辨證의 기준을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4. 四象草本卷에서는 鹿茸을 少陰人에게 사용하거나 東武遺稿에서는 黃芪, 甘草를 太陽人에게도 적용하는 등 아직 四象人의 체질별 藥의 분류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四象草本卷에서는 내용의 순서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 太陽人 順이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太陽人 順으로 내용이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少陽人에 대해 더 먼저 연구하고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後에 太陰人, 少陰人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6. 四象草本卷에서는 處方의 내용이 주로 疾病中心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東醫壽世保元으로 가서는 體質病證을 다루는 포괄적인 病證運用을 하는 處方들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1. 宋·炳 外, 四象醫學, 김문당, 1997, p.32, p.34, pp.66~76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1992, pp.73~293, pp.305~315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pp.17~ 20, p.22, p.23, pp.25~32
4. 李濟馬, 東武遺稿 稿, 海東醫學社, 1999, p. 165
5. 李濟馬 原著, 金達來 編譯, 도서출판 정담, 1999, p. 1
6. 李壽瓊 外,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書誌學的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Vol. 11. No.1, 1999, pp.63~77